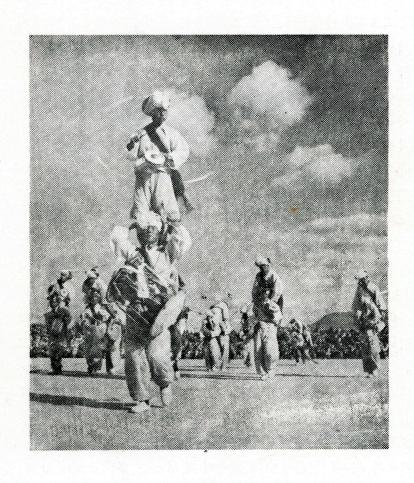
## 제 1 4 회 전 국 민 속 예 술 경 연 대 회



전 라 남 도

## 南道農樂

## 1. 由 來

우리 全南은 農事의 고장, 風流의 고장으로서 예로부터 「農者는 天下之大本」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구성진 農樂의 가락속에 파 문혀 삶을 營爲해 왔다。 그래서 오늘날 까지 다른 고장에 比할 수 없는 優秀한 農樂이 그 綿綿한 傳統을 이어 오고 있는것이다。

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近來에 와서 우리의 傳統文化를 無條件 비하 (卑下) 하려는 그릇된 風潮속에 南道農樂도 그 固有한 바탕 가락이 次次 變質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빚고 있다。

이에 南道農樂의 優秀한 바탕가락과 陣法을 찾아 캐내어 이를 再整理 定立化시켜 永久히 傳承 해 보자는 意圖下에 光州農業高等學校 學生들로 하여금 그 手法을 익혀 紹介하기에 이르렀다。

南道農樂은 크게 나누어「左道굿」,「右道굿」,「절충굿」 等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이번에 선 보이게 되는 바탕굿은「高興地方의 農 樂」을 中心으로 해서 엮은 것이다。

따라서 「절충굿」 이랄수 있으며 衣裳은 戰笠 (병치) 과 꼬깔을 併用하고 있고 그 手法은 勞作을 흉내낸 演技가 主調를 이루고 있 다。

特히 全員이 舞童을 서고 또 小皷보다 큰 북을 들고 노는 「북놀이」는 다른 地方에서 볼수 없는 特異한 것이다。

호사한 꼬깔을 쓴 사람의 어깨위에 선 舞童들의 상모돌림도 逸品 이려니와 큰 북의 웅장한 가락속에 펼쳐지는 多樣한 몸놀림은 다른 地方 農樂의 추종을 不許하고 있다。

우리는 이런 멋들어진 가락과 춤을 익혀 民俗音樂의 精華를 꾀하고 이를 永遠토록 繼承해야 하겠다

## 2. 농 부 가

- 1. 여-여-여 여루 상-사 뒤-여 여보시요 농부님 네를 말-들어-보오 아-나 농부들 말들어 보오 일락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- 동녁에 달솟아 온다 "후렴" 여-여-여 여루 상사뒤여
- 2.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되여 여보소 농부를 말들어 어화 농부를 말들어 다되었네 다되어 서마지기 논뱀이가 반달만큼 남었네 니가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"후렴"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되여
- 3. 떠드러온다 점심바구니 떠들어온다 "후렴" 어화 어화 어어루 상사뒤여
- 기획 지도 : 광주농업고등학교 양인 석
- ⊙ 농 부 가 : 광주여자고등학교 양 혜 자